

平成29年度大学院地球社会統合科学府

修士課程（夏季）入学試験

入学試験問題

⑫ アジア言語文化

注意事項

1. 問題は「はじめ」の合図があるまで開けないこと。
2. 試験開始後、解答用紙に受験番号等を明記すること。
3. 解答用紙は、必ず全部提出すること。
4. 問題冊子は持ち帰ってよい。
5. 指定の解答用紙を用いること。

* 「アジア言語文化」科目は、A「中国関係」、B「韓国朝鮮関係」の大問に分かれる。いずれか一つを選択して解答しなさい。

A「中国関係」

I, 次の歐陽脩の『西湖念語』を読んで、後の問いに答えなさい。(100点)

昔者①王子猷之愛竹、造門不問於主人、②陶淵明之卧輿、遇酒便留於道上。況西湖之勝概、擅東潁之佳名。雖美景良辰、固多於高會、而清風明月、幸屬於閑人。並遊或結於良朋、③乘興有時而獨往。④鳴蛙暫聽、安問屬官而屬私、曲水臨流、自可一觴而一詠。至飲然而會意、亦傍若於無人。乃知偶來常勝於特來、前言可信、所有雖非於己有、其得已多。因翻舊閱之辭、寫以新聲之調、敢陣薄伎、聊佐清歡。

(1) この文章を全て日本語に訳しなさい。(50点)

(2) 下線部①王子猷について、『世説新語』簡傲に以下の記述がある。この文章を全て日本語に訳しなさい。(15点)

王子猷嘗行過吳中、見一士大夫家極有好竹。主已知子猷當往、乃灑掃施設、在聽事坐相待。王肩輿徑造竹下、諷嘯良久。主已失望、猶冀還當通、遂直欲出門。主人大不堪、便令左右閉門不聽出。王更以此賞主人、乃留坐、盡歡而去。

(3) 下線部②陶淵明について、『晋書』陶淵明伝に以下の記述がある。この文章を全て日本語に訳しなさい。(15点)

江州刺史王弘欲識之、不能致也。淵明嘗往廬山、弘命淵明故人龐通之齎酒具、於半道栗里之間邀之。淵明有脚疾、使一門生二兒舁籃輿、既至、欣然便共飲酌。俄頃弘至、亦無迕也。

(4) 下線部③乘興有時而獨往について、『世説新語』任誕に以下の記述がある。この文章を全て日本語に訳しなさい。(10点)

王子猷居山陰、夜大雪、眠覺、開室命酌酒、四望皎然。因起彷徨、詠左思招魂詩、忽憶戴安道、時戴在剡、即便夜乘小船就之。經宿方至、造門不前而返。人問其故、王曰吾本乘興

而行、興盡而返、何必見戴。

(5) 下線部④鳴蛙暫聽、安問属官而属私について、『水経注』穀水の条に以下の記述がある。この文章を全て日本語に訳しなさい。(10点)

惠帝為太子、出聞蝦蟇聲、問人為是官蝦蟇私蝦蟇。侍臣賈胤對曰在官地為官蝦蟇、在私地為私蝦蟇。令曰若官蝦蟇、可給廩。先是有讖云蝦蟇富貴。

II, 周必大が孫謙益に送った、次の書簡を読んで後の問いに答えなさい。(30点)

某拜啓、秋冷、不審履況何如。《六一集》并総目何為許久未蒙封示。乃如年譜、皆說六一先生是景德四年六月二十六日丙辰生。前日搜訪得《于役志》一卷、乃是自館閣貶夷陵時舟行日記、止至公安、其間於六月二十一日説予生日為壽。尋取《真宗実録》及《長篇》再三契勘、果是丙辰乃六月二十一日、已得戊申月節氣。然則諸家考証容或未詳。校書如拂塵。一重過了又一重、非虚語也。河東、河北兩路奉使奏稿四万字、徧問相識、尋求未得、因繙故書、却自有繕本、當併刊刻。今汲汲欲得《総目》及諸集排比、庶免因循、何乃遲遲如此。不免專懇邑令借人齎來、勿留滯、幸甚。他未暇及、惟幾保愛。不宣。

(1) 周必大が歐陽脩の誕生日を考証した過程を述べなさい。(10点)

(2) 河東、河北兩路奉使奏稿四万字はどこに存在していたのか、説明しなさい。(10点)

(3) 周必大は、孫謙益に何を急ぐように要請しているのか。(10点)

III, 次の王維「送劉司直赴安西」詩を日本語に訳しなさい。(20点)

絶域陽関道
胡沙與塞塵
三春時有雁
万里少行人
昔蓂随天馬
葡萄逐漢臣
當令外国懼

不敢覓和親

(注)

苜蓿・・・うまごやし、クローバーのこと。

IV、次の項目から 5 つを選んで、それぞれ 100 字程度で説明しなさい (選んだ番号を明示して書き始めること)。(10 点×5)

- (1) 徐玉諾
- (2) 松本清張
- (3) 高行健
- (4) 朦朧詩
- (5) 本間久雄
- (6) 道春点
- (7) 採桑子
- (8) 米芾
- (9) 范仲淹
- (10) 服部南郭

B 「韓国朝鮮關係」

I 次の新聞記事(『朝鮮日報』2016年6月24日付)を適宜に要約した上で、話題となっていることについて、解説しなさい。

(100点)

지난달 일본 대마도로 여행을 다녀왔다. 그곳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심각하게 걱정하는 문제가 있었다.

2012년 10월 대마도에서 한국인이 훔쳐 간 불상 두 점 가운데 한 점을 3년 반이 지나도록 우리가 돌려주지 않고, 오히려 문화계 일각에서 "일본이 약탈해 간 것 아니냐"고 반응하면서 생긴 마찰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불상 안에서 나온 기록 가운데 "고려국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했다"는 내용을 두고 우리의 일부 학자가 "500여 년 전에 왜구(倭寇)가 약탈해 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비롯된 일이다.

부석사 측은 이 주장에 따라 대마도 관음사 측에 "불상을 입수한 경위를 규명해달라"고 요구했고, 우리 정부를 상대로는 불상 반환을 금지해달라는 '유체 동산 점유 이전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우리 사법부는 "대마도 관음사 측이 불상을 정당하게 취득했음을 확인해줄 때까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이에 따라 일본인들의 험한 감정이 고조되면서 그 지역 제일 한국인들의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고 향후 외교 관계에서도 마찰이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런데 가처분 결정 기한인 지난 2월 25일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기 위해 올 들어 부석사 측에서 다시 인도 중지 소송을 제기해 불상 반환이 재연기되자, 현지 일본인들의 반한 감정이 한층 깊어져간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원의 판단도 아쉽고 부석사 측 대응도 아쉽다. 그 불상이 불법 취득인지 정당한 취득인지는 불상 내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500년 전의 일을 명확한 증거도 없이 '약탈'로 몰아가는 것은 비이성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이런 논리라면 세계에 흩어진 우리 유물에 대해 각국이 정당한 취득 경위를 증명하지 못하면 훔쳐 와도 된다는 말인가. 양

국민 감정만 불편하게 만들고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국격을 우리 스스로 훼손하는 행위는 아닐까.

대마도는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이 사는 곳이다. 그곳에 고려 불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게다가 열악한 장소에 방치된 것도 아니며, 대마도 사람들의 신앙처에 봉안돼 불상 본연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사법부는 일단 이 불상이 돌아가게 조치해야 옳은 것 아닐까. 우리 문화재는 하나하나가 아주 소중하다. 그러나 확인하기 힘든 과거 문제로 실익도 없이 불화를 자초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Ⅱ 次の文章の意味的違いについて、アスペクトの観点、および日本語表現との異同から説明しなさい。(25点)

A 비가 오고 있다.

B 비가 와 있다.

Ⅲ 次の項目から5つを選んで、それぞれ100字程度で説明しなさい(選んだ番号を明示して書き始めること)。(15点×5)

- ① 古朝鮮
- ② 三国史記
- ③ 海東諸国紀
- ④ 科田法
- ⑤ 新羅鄉歌
- ⑥ 李光洙
- ⑦ 金史良
- ⑧ 国民総力朝鮮連盟
- ⑨ 王公家軌範
- ⑩ 一民主義
- ⑪ 先軍主義
- ⑫ 天道教